

“한국의 유교와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평

김 성 기

(성균관대학교)

1. 최병철 교수(이하 필자로 약칭)는 유교의 교의체계는 ‘天下一家’ 또는 ‘國家’ 및 ‘一家’라는 사회적 통합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능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실천활동은 성균관과 유도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그 중점 실천 사항은 대체로 충효교실, 예절교육, 경전교육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그렇지만 한국 유교의 교화사업은 ‘다각적인 사업활동을 통하여 국민정신 고양과 현대적 도덕 윤리 개발이 모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교의 교화사업은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그 원인을 유림 조직의 자체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구성원의 노령화, 둘째 서구적 물질주의(신사대주의)에 따른 사회일반(특히 젊은층)의 무관심이고, 셋째 타종교와 달리 유림의 지도층 대부분이 유교이론에 정통하지도 못한 점이고, 넷째 유교의 본령이 교육과 학문에 있음에도 전문학자를 경시한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 교체에 실패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상응하지 못하면 사회적 기능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교는 조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대대적이고도 전반적인 개혁과 보완 없이는 닥쳐오는 세계화 시대에 낙오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자성론을 펴기도 한다.

3. 여러 가지 조사와 통계에 의하면 유교 및 유교 전통에 대한 기대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에 반하여 사회적 평가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유교의 사회적 평가가 과대평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과소평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4. 유교의 사회적 기능의 출발점을 가족 공동체적 특징에서 찾았는데, 이는 자칫 “시민사회”에서의 윤리로는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본다. 유교 윤리는 과연 시민사회에 적응 불가능한 이론인가? 아니면 그 이상을 넘어서는 어떤 시민 종교로서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지 필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5. 유교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동사회’를 꿈꾸는 여성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예를 들면 ‘선비 정신’이란 말만하더라도 남성위주의 문화적 산물이 아닌가?

6. 유교의 미래를 위해서 유교 조직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고, 청소년이나 장년층으로 과감한 세대교체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는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7. 얼마전 한 기독교인과 대화 중 통일 이후의 선교전략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읍·면·동까지도 선교계획이 완료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민족의 동질성의 확보에 가장 큰 역할과 지분을 갖고 있는 유교는 아직 통일 후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자기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필자는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등이 갖는 종교적 특성과 유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것이 민족동질성 회복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유교의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통일 후를 대비할 어떤 좋은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논자는 통일 후의 유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그 성패는 유교의 조직과 자기동일성회복에 달린 것이지 결코 무시하거나 남에게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8. 유교의 고유기반과 존재이유가 꼭히 다른 종교와 같은 교단을 조직화하고 커다

란 교회나 사찰을 짓고 많은 신도를 거느리는데서 찾아야 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능의 상당부분마저 저버린다면 이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특히 관혼상제의 통과례마저 자기의 역할을 저버린다면 보이지 않는 종교로서의 자기기반마저 잃게 될 것이다. 또 고아원과 사회사업, 양로원 등에 유교의 종단에서는 하루바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의 역할을 회복하여 다원화된 사회에서 자기 모습을 회복하여 사람람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제한된 여건에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